

AI시대의 기업, 성평등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 ESG와 AI 윤리 속 성평등 거버넌스 전략 —

토론자 : 서스틴브릿지 신지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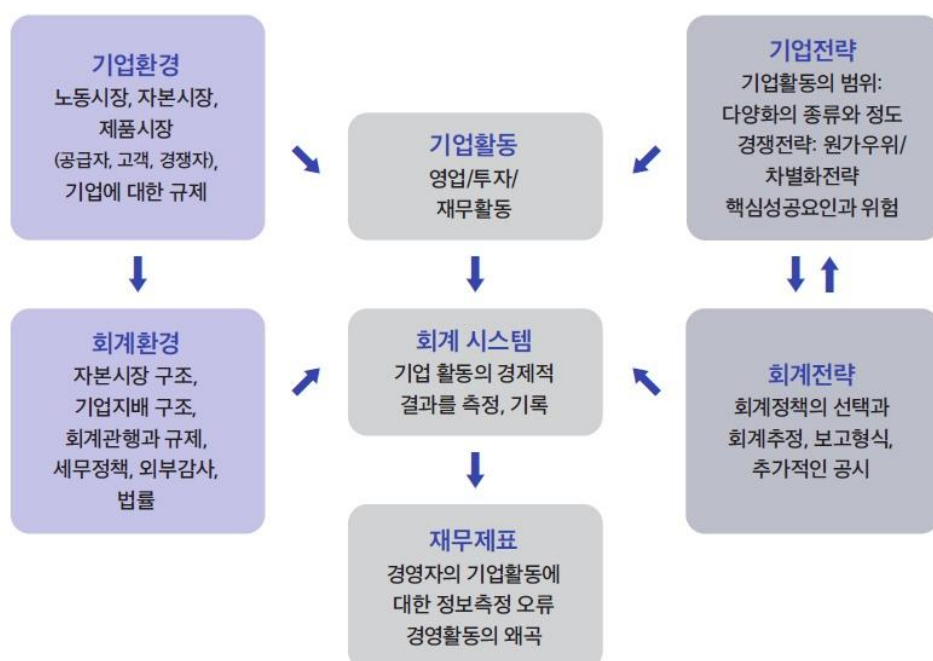
ESG 공시가 '항목 채우기'에서 '기업가치 평가 지표'로 전환되는 지금이, 성평등을 선언이 아닌 설계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유예기간입니다. 공시 규제의 법정화, 다양성·포용성 개념의 확장, 현장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국면을 통해 그 설계 방향을 제시합니다.

1. 공시 규제, '항목'에서 '기업가치'로

- 2025년 9월 초안(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부터 거래소 공시 시작) → 2026년 7월 8일 당정협의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확정
- 최종안은 대상·속도를 크게 확대: 2028년 사업보고서(FY2027 실적)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거래소 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법정공시.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인사이트** ESG는 더 이상 '비재무정보'가 아니라 기업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무정보'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기업전략이 회계전략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공시 준비 과정이 역으로 경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양방향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성평등 지표도 '사후 보고 항목'이 아니라 '사전 경영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window)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기업 전략과 회계 전략의 상관 관계



출처: <재무회계 강의> 백복현, 정부헌 지음, 홍문사

2. 성별·성비를 넘어선 '다양성과 포용성'

- 현재 공시상 다양성은 여성 임직원·임원·이사 비율 등 좁은 지표로 다뤄짐. 그러나 '다양성'(누가 있는가)과 '포용성'(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은 별개 — 콜센터처럼 여성 비중이 높아도 의사결정 참여가 없다면 포용성은 없는 것
- 사례: AI 챗봇 '이루다'는 성·장애인 비하 발언 이슈로 출시 직후 서비스를 접음.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원 한 명, 그리고 그 목소리를 수용하는 조직문화·거버넌스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 **인사이트** 다양성 지표(숫자)는 포용성(구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 집니다. 공시상 '여성 비율'은 결과 지표일 뿐이며, 진짜 관리해야 할 대상은 '목소리가 실제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3. 현장의 세 가지 국면과 각기 다른 처방

- ① 인지 부족 — 창업 초기 격의 없는 문화가 성희롱 경계를 넘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형식적 이행이 아닌 실질적 내재화가 창업 초기일수록 중요(스케일업 이후엔 문화 교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 ② 비즈니스 수익극대화 vs 성인지 감수성의 충돌 — 게임사의 선정적 캐릭터 묘사처럼 자극적 콘텐츠가 수익과 직결될 때. 메타는 청소년 중독 소송에서 약 171 억 달러(약 23 조원) 합의금과 함께 과도한 보정필터 제한 등 10 가지 조치에 합의
- ③ 인재 풀 부재 — 공공기관이 여성 이사를 찾아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IBM은 'Women Council'을 없애는 것이 목표. 수평적 조직문화와 직급별 여성 인재 파이프라인 관리의 상시화가 중요

▶ **인사이트** 세 국면은 처방이 다릅니다 — ①은 '교육의 시기'(초기부터), ②는 '판단의 시계'(장기 관점의 거버넌스), ③은 '인프라의 존재'(사전 구축된 인재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설계 과제입니다.

맺음말 — 유예기간을 설계의 시간으로

MYSC 김정태 대표가 강조한 '30%는 숫자가 아니라 설계도'라는 메시지에 동의합니다. 공시는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없으며 최소 3~4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 바로 이 유예기간을 다음 세 가지 설계에 써야 합니다.

- ① 창업 초기부터 성평등을 기업문화의 기본값으로 설계할 것
- ② 채용부터 임원까지 단계별 여성 인재 풀을 상시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

- ③ 수익과 성평등 가치가 충돌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명문화할 것

숫자를 채우는 공시가 아니라, 공시를 계기로 이 세 가지가 이사회 규정·평가지표 같은 '바꾸기 어려운 문서'에 새겨질 때 비로소 30%는 도착점이 아닌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